

‘제구력’ 잡은 이의리, 무사사구 ‘완벽投’

시범경기 첫 등판 kt戰 4이닝 1피안타 4탈삼진 호투

한준수 솔로·나성범 투런...김호령 4경기 연속 안타 5대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 발투수 이의리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안정된 투구를 펼치며 정규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이의리는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서 4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 150km에 이르는 패스트볼을 비롯해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고, 총 투구수는 46개였다. 특히 매 이닝 사사구 없이 상대 타선을 봉쇄한 점이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제구력 문제가 이날 경기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1회초 삼자범퇴로 출발한 이의리는 2회 첫 타자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이후 세 타자를 모두 외야플라이로 처리했다. 실점은 없었다. 3회에는 삼진 2개를 슈아내며 깔끔하게

이닝을 끝냈다. 4회 역시 삼진과 범타로 임무를 마무리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LG와의 연습경기에서 기록한 3이닝 2볼넷 4탈삼진 무실점과 비교하면 한층 안정된 투구 내용이었다. 올 시즌 선발의 한 축을 맡을 이의리의 컨디션을 확인한 경기이기도 했다. 이의리의 호투 속에 KIA는 kt를 5-4로 꺾었다.

타선에서는 홈런 두 방이 터졌다. 한준수가 솔로포를 터뜨렸고 나성범은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김호령도 안타를 추가하며 시범경기 4경기 연속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승부는 3회였다. KIA가 한 이닝에 다섯 점을 뽑았다.

선두 타자 한준수가 상대 선발 사우어를 상대로 우익수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어 2사 1루에서 김호령의 1타점 2루타가 나왔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 이의리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고 카스트로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성범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8구째 커브를 통타했다. 우월 투런 홈런이었다.

경기말판 추격도 있었다.

KIA는 7회 1점을 내줬고 8회에는 희생플라이와 2루타로 두 점을 더 허용했다. 9회에는 솔로 홈런까지 맞으며 1점 차까지 쫓겼다. 그래도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불펜도 여러 투수가 올라왔다. 이의리에 이어 김시흥, 김현수, 김범수가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범수는 6회초 2사 2-3루 위기에서 등판해 좌익수플라이로 이닝을 매조지었다. 성영탁(1실점), 최지민(2실점), 전상현(1실점)도 1이닝씩 던지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전날 경기에서는 양 팀이 나란히 12안타를 주고받으며 10-10으로 비겼다.

시범경기 2승1무1패를 기록한 KIA는 16일부터 창원에서 NC와 2연전을 치른다. 이후 대전(한화), 잠실(두산), 대구(삼성)로 이어지는 원정 8연전을 소화한다. /주홍철 기자

시즌 최다승 새 역사...AI페퍼스 ‘유종의 미’

리그 최충전 정관장에 3대1 부상 투혼 조이 30득점 맹활약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AI페퍼스는 1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최충전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세트 점수 3-1(25-23 25-14 23-25 25-21)로 승리했다.

이날 AI페퍼스는 지난 8일 현대건설과의 경기에 앞서 부상을 당했던 조이가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출전을 자청 30득점 맹활약을 펼쳤다. 박은서(18득점)와 시마무라(11득점)도 고비마다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세트를 가져온 AI페퍼스는 2세트 4-4에서 연속 3득점을 올리며 흐름을 잡은 뒤 조이와 박은서의 활약으로 12-6까지 점수 차를 벌이며 승기를 잡았다.

막강 화력으로 코트를 압도하며 24-14로 세트 포인트를 만든 뒤 상대 공격 범실로 2세트를 쉽게 따냈다.

정관장의 거센 반격에 3세트를 내준 AI페퍼스는 4세트도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쳤다.

경기 중반까지 10-13으로 끌려갔지만 상대 범실을 틈타 분위기를 반전한 후 공격이 활기



15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의 리그 최충전에서 승리하며 시즌 최다승 기록을 '16'으로 새로 쓴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 페퍼스 제공>

를 띠며 동점을 만든 뒤 박은서의 킥오피스로 18-17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잡은 AI페퍼스는 조이의 공격으로 24-21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시마무라의 이동 공격으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승리로 16승 20패(승점 47)를 기록하며 6위로 시즌을 마감한 AI페퍼스는 구단 역사에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시즌 초반 목표로 했던 '볼 배구'는 무산됐지

만 '만년 꼴찌' 꼬리표를 떼냈고 창단 최다 승점(47점)과 승수(16승 20패)를 쌓았다.

지난달 8일 도로공사에 승리하며 창단 최다승 타이틀을 기록한 AI페퍼스는 지난달 15일 IBK기업은행을 꺾고 시즌 최다승 기록을 작성했다.

이후 정관장, 흥국생명, 현대건설을 상대로 승수를 쌓으며 최다승 기록을 경신해 간 AI페퍼스는 이날 최다승을 '16'으로 새로 쓰며 팀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희중 기자

한·일 청소년, '양궁 메카' 광주에서 양궁으로 통하다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한·일 지역 종목 간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 공모에 양궁 종목이 선정돼 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일 청소년들의 국제경기 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 및 우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과 종목을 선정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교류로 만들어가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양궁 종목은 광주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으로 광주시양궁협회는 2022년에 전일본양궁연맹과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왕래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8월에 광주 일원(광주국제양궁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약 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이다. 교류 프로그램은 합동훈련, 친선경기, 공식경기, 문화탐방, 양궁 세미나, 국가대표 원포인트 레슨 등 청소년 양궁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궁 청소년

광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모 선정 국비 2천만원 확보



지난해 12월 18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광주-일본 양궁교류대회에서 함께 훈련을 마친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들이 양궁을 매개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친선과 화합을 다지고, 국제문화 교류 경험을 쌓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국제스포츠도시 광주에서 이번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에 양

궁 종목이 선정돼 일본 청소년들이 광주를 방문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이준재 효광중 교장·박재홍 남구체육회장·역도 손현호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이준재 효광중 교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 광주시청 역도팀 손현호가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했다.

이준재 교장, 박재홍 회장, 손현호는 지난 13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 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광주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학교체육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재 교장은 광주체육중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8종목 21종별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며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그 결과 전국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 302개, 은메달 277개, 동메달 359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학교체육 발전에 공헌했다.

생활체육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박재홍 회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개장 등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기여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앞장섰다.

경기 부문 장려상을 받은 손현호는 2025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 3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인상 3위·용상 1위·합계 3위를 기록했으며, 문국서상천태 역도경기대회에서 인상·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학교체육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재 교장(왼쪽)과 경기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손현호. <광주시체육회 제공>

용상·합계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용상 부문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국제 및 국내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보여준 노력과 열정이 국내 체육계 최고 권위인 대한체육상 수상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광주체육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전남도청 에페 단체전 준우승

실업연맹회장배, 사브르는 3위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에페 단체전 준우승과 사브르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사진)

김향은, 박소영, 김태희, 한다현이 팀을 이룬 전남도청 에페팀은 지난 11-1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 여자일부 에페 단체전 8강에서 충북도청을 43대36, 광주서구청에 페널티 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결승에서 강호 부산시청에 33대45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지현, 박다운, 김은선, 손정민으로 팀을 꾸린 사브르팀은 8강전에서 익산시청을 상대로 초반부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점수 차를 벌렸고, 결국 45대32로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대전시청과 치열한 승부를 펼쳤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과 경기 흐름을 끝내 뒤집지 못하며 32대45로 패해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전하며 최종 3위를 기록, 이번 대회에서 에페와 사브르 단체전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희중 기자